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긴 여름날에 할 일이 없으면 번번이 가서 물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떼 지어 노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대나무 하나를 잘라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물결 사이에 낚싯줄을 드리우게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서울에 살아서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굽은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이웃 사람이 준 것을 좋게 여겨서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한 손님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하기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굽어 안으로 향하였으니, 물고기가 바늘을 삼키기 쉬우나 뱉기도 어렵지 않다. 반드시 끝을 조금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하므로, 내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또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또 두 손님이 왔으므로 내가 낚싯바늘을 보여 주고 또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니, 한 손님이 말하기를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을 눌러서 굽힐 적에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싸라기 하나를 끼울 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굽힌 곡선의 끝부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서 틀림없이 장차 내뱉게 생겼다." 하므로, 나는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뾰족한 부분을 짧게 한 다음 낚싯대를 한동안 드리웠다.

손님이 말하기를 "법(法)은 여기서 다하였지만 묘리(妙理)는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하고는 내 낚싯대를 가져다가 스스로 드리우니, 낚싯줄도 나의 낚싯줄이요 낚싯바늘도 나의 낚싯바늘이요 먹이도 나의 먹이요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였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단지 낚싯대를 잡은 손일 뿐인데도 낚싯대를 드리우자마자 물고기가 마침내 낚싯바늘을 머금고 올라와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을 다투어 올라왔다.

내가 말하기를 "묘리가 이 정도에 이른단 말인가. 이를 또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손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니, 묘리를 어찌 말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또 이른바 묘리가 아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그대가 나의 법을 지켜 아침에도 낚싯대를 드리우고 저녁에도 낚싯대를 드리워서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날짜가 쌓이고 달수가 오래되어 익히고 익혀 이루어지면 손이 우선 그 알맞음을 가늠하고 마음이 우선 앎을 터득할 것이다. 내 그대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는 이에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하기를 "손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 도를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다만 낚시질에 쓸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손님이 이미 떠난 뒤에 그 말을 기록하

여 스스로 살피는 바이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는 도시에서 온 남자와 친해지며 사랑을 꿈꾸지만, 남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귀는 낌새를 보인다.

그는 집에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간 것들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무공해 채소예요."

"무공해고 뭐고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나는 당신에게 이 채소들을 갖다 주기 위해 지난봄 내내 마당을 일구어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텃밭을 일구는 동안 손에서 피가 나기도 했죠."

남자가 조소했다. 그 조소가 순간적으로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무공해 채소뿐이었어요.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심장은 격렬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네 눈에 내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 에잇, 재수 없어."

나는 남자가 내던진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나의 고추와 상추와 치커리와 가지를 수습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은 그보다 더 떨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후드득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비에 젖어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도 비에 젖어 걸어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이다. 남자다.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 두 사람이다.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긴 뒤에야 나는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알았다. 남자들이 정미소 앞에서 딱 멈추었다.

"잠깐만, 이게 뭘까?"

두 남자가 정미소 처마 밑에서 뭔가를 펼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건 고추야, 싸부딘. 상추도 있어.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어."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깐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 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남자들이 노래를 뚝 멈추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싸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정미소를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

"그럴 거야."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 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구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 드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에,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

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라) **[등장인물]** 양회기(35세):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 / 김인옥(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 최상현(39세): 인옥의 남편 / 정금숙(28세): 간호사

인옥: 선생님…….

회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오?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회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마) 칸트의 도덕 법칙을 표현하는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것이다. 칸트는 한 사람이 선택한 준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면, 도덕 법칙의 명령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또 다른 정언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의 원리에 전제된 인간 존중의 정신을 표현한 정언 명령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며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처럼 자신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한다면,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가치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로부터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중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인격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사물과 달리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준칙: 자기 자신의 행위 지침으로서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바)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사) 인간의 활동은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고, 둘째, 작업은 인공 세계를 건설하여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본연의 능력과 개성을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활동이다. 노동은 직(職)에 해당하고 행위가 바로 업(業)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활동은 동물도 하는 걱정이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

(아)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하여 윤 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자 가장 좋은 것, 즉 최고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성의 덕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성이나 지혜가 비록 그 자체로 쾌락은 아니지만, 진정한 쾌락에 이르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혜를 통해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학파가 지향한 쾌락주의의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를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불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통해 고통과 쾌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건전한 추론으로써 쾌락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절제, 정의, 우정 등의 덕을 쌓는 삶을 통해 쾌락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의 부정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세속의 삶을 떠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쾌락 기계(pleasure machine)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순수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잡한 기계 하나를 발명했다. 이 기계에는 사람의 대뇌 피질 영역과 뇌의 다른 부분에 전류를 보내는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우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한다. 당신은 그런 기계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차) 쾌락은 망해 가는 연속이다.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한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쾌락이 겹쳐 올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쾌락이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쾌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행복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경험이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생각이 전환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인옥과 회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제시문 (마)를 근거로 평가하고,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출전 및 출제의도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인문사회계열 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깨달음'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깨달음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와 각기 다른 상황과 과정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깨달음이 도덕 법칙, 직업윤리와 연결되는 측면을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하여 도출해 내는 유추적 사고력, 4)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생각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제시문이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주인공이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 및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사상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에 비추어 해석, 비판하는 능력, 2) 직업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출해 내는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결여된 직업적 태도를 분석하여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직업 윤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인공이 지녀야 할 태도를 찾아내야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쾌락에 대한 추구 방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 2)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바라 보는 두 개의 시각을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남구만, 「조설」, 김동환 외, 『국어』, 교학사, 2021, 109-111쪽.
- 제시문 (나): 공선옥, 「명랑한 밤길」,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08-312쪽.
- 제시문 (다): 양귀자, 「비 오는 말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21, 53-61쪽.
- 제시문 (라): 차범석, 「성난 기계」, 민현식 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20, 126-133쪽.
- 제시문 (마): 「의무론과 칸트주의」,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21, 137-141쪽.
- 제시문 (바): 함민복, 「긍정적인 밥」,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20, 328쪽.
- 제시문 (사): 아렌트(Arendt, H.), 「인간의 조건과 직업」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9, 82쪽.
- 제시문 (아):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21, 113-115쪽.
- 제시문 (자):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 피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의미」,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20, 119쪽.
- 제시문 (차): 브래들리, 「쾌락의 역설: 쾌락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21, 119쪽.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21)에 실린 남구만의 「조설(釣說)」(성백호 번역)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서술자가 낚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타인의 조언과 충고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낚시의 방법이 아니라 이른바 묘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이를 세상의 이치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깨우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9)에 실린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사랑에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진 여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겪는 현실의 고단함과 삶의 애환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여인은 자신의 절망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21)에 실린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이 한 수리공에게 욕실공사를 맡긴 후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입견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데다가 뜻밖의 호의까지 베풀자 수리공에게 품었던 자신의 편협하고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20)에 실린 차범석의 「성난 기계」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의사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이후 환자 남편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환자를 기계적으로만 대하던 의사는 환자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의무론과 칸트주의」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해도 좋다고 기꺼이 바랄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칸트의 보편주의 정신 및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파악해야 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함민복의 시 「긍정적인 밥」의 전문이다. 이 제시문은 시적 화자가 자기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쓰는 시의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시에 귀한 가치가 있음에 감사해한다. 그리고 시를 단순한 돈이 아닌 밥, 국밥, 소금 등의 일용한 양식에 견주어 봄으로써 겸허한 만족감과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직업」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에 대한 의미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職)과 진정한 삶의 가치실현을 위한 업(業)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직업인의 윤리적, 태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주요 철학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에피쿠로스학파가 규정한 쾌락의 정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식, 쾌락과 행복의 관계 등이다. 이 제시문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사상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20)에 실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의미」의 일부를 재편집한 글이다. 해당 부분의 원전은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저술한 『윤리학』이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쾌락기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쾌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21)에 「쾌락의 역설: 쾌락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의 일부를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원전은 브래들리가 저술한 『윤리적 학습』이다. 이 제시문은 쾌락으로 만족감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쾌락을 통해 행복에 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쾌락의 역설의 핵심 내용이다. 이 내용은 쾌락과 행복의 관련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생각이 전환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라)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나'는 타인의 충고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우친다. (나)에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상처받고 좌절한 '나'는 타국에서의 고단한 일상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절망을 딛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다)의 '그'는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꾼다. 이를 통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뉘우친다. (라)의 회기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하여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후 그는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환자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점, 생명의 존엄성 등을 깨닫는다. (565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인옥과 회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제시문 (마)를 근거로 평가하고,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의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회기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올바른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의 첫 번째 정언 명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기는 인옥을 기계로 대상화하면서 사물과 같은 수단으로 치부한다. 회기가 환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목적으로, 즉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두 번째 정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의 시인은 시를 써서 얻는 수입에 아쉬워하면서도 시로 돈을 벌 수 있음에 겸허히 감사해하며, 시의 가치를 일용할 양식에 빗대어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낸다. (사)에서 '직'의 활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고, '업'의 활동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회기의 활동은 '노동'에는 해당하나 '행위'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직업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66자)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자)의 쾌락기계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편, (아)와 (차)를 비교하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동일하다면, (차)에서 둘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420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계기**: '내'(서술자)가 타인의 조언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함(4점)
깨달은 것: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4점)

(나) **계기**: '내'(화자)가 타국에서의 고단한 일상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함(4점)
깨달은 것: 실연의 상처와 좌절감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4점)

(다) **계기**: '그'가 수리공(임 씨)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을 봄(4점)
깨달은 것: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4점)

(라) **계기**: '회기'(의사)가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함(4점)
깨달은 것: 생명의 소중함과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것의 중요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5점)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점, 생명의 존엄성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칸트의 도덕법칙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칸트의 두 가지 정언명령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칸트의 첫 번째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원리로써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타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칙이어야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제시문 (라) 속에서 나타나는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에 어긋난다.

- 제시문 (마)의 칸트의 정언명령을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라)에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정언명령과 (라)에 드러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마)의 관점을 근거로 회기가 위반한 보편성 원리, 인간존중의 원리를 정확히 부여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2) (라)의 회기가 보여주는 의사로서의 문제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기가 직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바)에 나타난 것은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이다.

② 제시문 (사)의 논지는 '직'뿐 아니라 '업'의 조건을 충족하여 직업을 통해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시문 (바)의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을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사)의 '업'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시문 (라)의 회기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의 회기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마)의 관점을 서술한 경우	4~7점
		제시문 (라)에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4~7점
		(마)의 관점을 근거로 (라)의 회기의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	15~20점
	②(바)와 (사)를 근거로 회기가 갖춰야 할 자세를 평가(20): 5~20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4~7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8~14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라)의 회기에게 필요한 태도를 제시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와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찾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제시문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자)의 쾌락기계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2) 제시문 (아)와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제시문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각각 찾아 명확히 설명(10점)	(아) 또는 (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설명	3~6점
		(아)와 (자)의 모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설명	7~10점
	②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히 설명(10점)	(아) 또는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설명	3~6점
		(아)와 (차) 모두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설명	7~10점